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2014년 6월 2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업부 활용촉진과 신동준 과장(044-203-4150), 박재탁 사무관(044-203-4153)
무역협회 FTA활용전략실 조민화 실장(02-6000-4681), 김미경 과장(02-6000-4682)

자유무역협정(FTA)콜센터 1380, 애로해소 원스톱 창구로 역할 톡톡

– 개통 후 1년간 10,922건 상담 –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콜센터 1380이 오늘로 개통 1주년을 맞이하였음.

* FTA콜센터 1380은 지난해 6월24일 개통

○ 그동안 1380은 자유무역협정(FTA)활용과 관련하여 애로 요건별, 업종별, 협정별 전문 관세사를 배치하고 중소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고 있음.

□ 많은 중소기업들이 1380을 통해 FTA 관련 다양한 애로를 해소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문자상표부착품방식(OEM) 수출을 하다가 FTA를 활용하여 자사 브랜드를 달고 직접 수출에 성공한 A사, 신제품을 개발하여 경쟁국 제품을 따돌리고 수출에 성공한 K사, 원산지 관리 초보기업에서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D사, 정확한 자료준비로 사후검증 대응에 성공한 T사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1380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FTA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으로 나타났음.

□ 1380 개통 이후 지난 1년간 접수된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관련 문의는 총 10,922건에 이르며, 이들 중 전문 관세사가 30분 이상 상담하고 애로해소를 지원한 경우는 8,040건에 달함.

○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문 관세사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해주거나 심화 지원 프로그램인 'OK FTA 현장 컨설팅'으로 연결해 주고 있으며, 실제로 1,183개사가 1380을 통해 현장방문 지원을 받음.

○ 지난 1년간 FTA센터의 전문상담 건을 애로유형별로 살펴보면, 품목마스트, 자재명세서 작성 등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내용(36.2%, 2,907건)이 1/3 이상을 차지하고, 제품의 품목분류·관세율(21.2%, 1,702건), 원산지결정기준(13.6%, 1,095건), 인증수출자 관련 내용(8.7%, 698건), 기타(20.4%, 1,638건) 순임.

- 업종별로는 기계(9.0%, 727건), 화학(8.4%, 675건), 전기/전자(7.9%, 637건), 섬유/직물(7.5%, 606건), 철강금속(4.9%, 395건), 자동차 부품(4.3%, 348건), 가공식품(4.0%, 324건), 기타(53.8%, 4,382건) 순으로 상담이 많았음.

- 협정별로는 EU(24.5%, 1,972건), ASEAN(22.2%, 1,783건) 관련 문의가 많았고, 이어서 미국(19.1%, 1,533건), 인도(6.3%, 503건)가 뒤를 이었음.

□ 정부는 1380에서 파악된 내용을 업종별 FTA 교육, 설명회 개최시 반영하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등 1380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1380을 통해 제기된 애로 사항 중 제도개선 또는 협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수립이나 이행협의 시 적극 반영하는 등 1380이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

※ 붙임 : FTA콜센터 1380 상담 사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박재탁 사무관(☎ 044-203-4153)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FTA콜센터 1380 상담 사례**

1 FTA를 활용, OEM 수출에서 자사 브랜드를 달고 직접 수출 성공

o **[기업개요]** 경기도에 위치한 A사는 진공포장기와 포장필름을 제조하는 업체로, OEM 방식으로 주로 수출을 진행

o **[기업애로]** 자사 브랜드를 개발하여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FTA를 활용하면 가격경쟁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FTA콜센터를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

o **[지원사항]**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소속 전문가들과의 수차례 상담 끝에 EU로 수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독일 수입자에게 제공

o **[지원성과]** 자사 브랜드로 인한 신뢰도 및 FTA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독일로 수출 개시 (13년 8월)

2 기업의 新성장동력이 된 제품, FTA 활용으로 수출 성공

o **[기업개요]** 과거 무선전화 부품을 생산하던 K전자는 태양광 제품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노력 끝에 휴대용 태양광 랜턴을 개발하고 대만에 수출계약 성사

– 당초 대만과 중국산 수입을 고려하던 태국 바이어는, 한국 제품을 수입하면 35%에 달하는 관세 절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K사의 제품을 선택

o **[기업애로]** K사는 샘플 선적을 며칠 앞두고서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사실만으로 FTA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FTA 콜센터로 문의

o **[지원사항]** 한-ASEAN FTA는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일이 촉박하였고 이에 FTA 콜센터 담당 관세사는 K사를 직접 방문

–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기준 확인, 원산지 판정 등 전 과정을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의 준비 및 작성을 지원

o **[지원성과]** 샘플 선적 후 3영업일 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성공, 태국에서 요구하는 FTA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였고, 이에 따라 **1천만불 이상의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 중**

3 원산지 관리업무 초보자에서 인증 수출자로 거듭나기

o **[기업개요]** 특수차량용 크레인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A사는 태국 바이어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았으나, 원산지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음

o **[기업애로]** D사의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특히 크레인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1,000여 개에 달하며, 무엇보다 FTA원산지 증명서 업무를 해본 경험과 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

o **[지원사항]** D사 담당자는 FTA 콜센터로 문의하여 기초적인 설명을 듣고, 이후 업체로 직접 방문한 FTA 센터 소속 관세사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전 과정을 밀착지원

o **[지원성과]** 바이어가 요청한 기일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송부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향후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용이해짐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는 혜택이 있음

4 상세한 가이드로 사후검증 대응 성공

o **[기업개요]** 생활용품을 제작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T사는 바이어로부터 미국의 세관당국인 CBP의 원산지 검증이 시작되었으니 지원을 요청한다는 메일과 미 세관의 정보요청서 (F-28)를 전달받음

o **[기업애로]** 사후검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일주일간의 탐색 끝에 FTA 콜센터로 연락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소명자료 기한 제출 기한 30일중 20일을 소모하였음

o **[지원사항]** FTA센터의 사후검증 대응 전담 관세사는 한-미 FTA사후검증의 개념과 절차를 안내하고 바이어와의 협력을 통해서 CBP의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받을 것을 제안

– T사를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원산지 판정을 한 결과, T사의 수출품이 역내산으로서 충분한 검증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미국 세관당국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소명자료 작성 사례를 제시하고, 완성된 T사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부족자료 보완을 지원

o **[지원성과]** T사는 기한 내에 자료를 미 세관에 제출하자 CBP는 T사 제품을 역내산으로 판단하고 검증을 종료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